

광주세계수영대회 6개월 앞 준비 순조

‘평화의 물결 속으로’ 슬로건 ... 7월 12~28일 광주 등에서 열려
선수촌 공정률 82%·기업 후원 성과 ... 입장권 판매도 본격화
세계 200개국 TV 시청 5억명·광주 생산효과 1조 4천억 기대

2019년, 광주가 세계를 향해 힘차게 물살을 가른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수촌 공정률이 82%에 달하는 등 대회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평화의 물결 속으로’ (DIVE INTO PEACE)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광주에서 열린다.

〈관련기사 3면〉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올해 국내에서 열리는 유일한 국제 체육행사다. 또 광주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평가받고 있으며, 광주지역 생산유발 효과도 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산구 송정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선수촌은 현재 25개동에 1660세대가 건립 중이며 공정률은 82%다. 이중 선수촌은 13개동에 959세대, 미디어촌은 12개동에 701세대가 건축되고 있다.

대회 성공을 위한 기업 후원 작업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조직위는 FINA 후원사인 니콘, 야쿠르트, 아레나, 밀싸폴, 오메가, 삼성 등 9개사를 제외한 국내스폰서, 국내서플라이, 국내서포터 등 후원기업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스폰서는 자동차, 정보통신, 건설, 에너지, 교통, 인터넷포털 그리고 국내서플라이어는 생수, 은행, 케이터링, 가구, 게임, 보안 분야 기업이 대상이다. 국내서포터는 숙박, 백화점(마

트), 보험, 물류, 정장류, 맥주, 식품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수영선수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올림픽 등 국제스포츠대회 참여 기업 및 지역에 연고로 둔 대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대회 물자 관련 분야는 후원 경쟁 모집을 통해 후원금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입장권 판매도 본격화했다. 입장권 판매 대상은 개·폐회식, 6개 종목 76개 세션의 59만5000석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41만9000매를 발행해 37만매를 판매하겠다는 것이 조직위의 목표다.

대회 개막이 다가오면서 개최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직위에 따르면 직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인 지난해 헝가리 부다페스트대회에는 177개국 선수 2303명, 임원 1912명, 수영대회연맹 관계자 1279명과 1611개 미디어와 방송 등이 참여했다. 본 대회에 이어 열리는 아마추어 동호인 대회인 마스터즈 대회 등록자 수도 1만2000명에 달했고 대회기간 48만 명의 관객이 경기장을 찾았다.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대회를 중계했고, TV 누적시청자만 5억1000만명에 이른다.

광주전남연구원이 추산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제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전국 2조4000억원, 광주 1조4000억원이며 부가가치유발 효과 전국 1조원, 광주 6500억원이다. 고용창출 효과도 광주 1만8000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만400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회 기간 전 세계 수억 명이 실시간으로 TV를 시청하고 45억명이 언론을 통해 ‘광주의 수영 축제’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14일 광주시 서구 광주시청사 전면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알리는 대형 홍보판이 서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전국 첫 ‘노사상생도시’ 선언

광주형 일자리 성사 의지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사상생도시’를 선언했다. 노동계를 존중하고 기업에는 적정이익을 보장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 초석이 되는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 (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윤섭 광주시장은 1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광주형 일자리를 반드시 성공시켜 ‘노사상생도시’를 실현하겠다”며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자원이 없고 입지와 접근성에서도 불리한 광주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사상생도시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서 “광주에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는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 ‘정의로운 도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대명제를 실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노사상생도시를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노동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고 밝히면서 노사상생도시의 첫 걸음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꼽았다.

그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서 구체적인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유일한 쟁점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에 대해 협상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의 이번 노사상생도시 선언은 미래 광주 산업 전반의 부흥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선 6기의 ‘광주형 일자리’가 자동차산업에 한정돼 있었다면 민선 7기의 ‘노사상생도시 선언’은 광주의 전 산업으로 일차리 창출, 노동 존중, 기업 적정이익 보장 등의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의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당, 진상조사위원 권태오·이동욱·차기환 추천 5월단체 “5·18 가치 훼손·왜곡 앞장선 인물” 반발

자유한국당이 14일 동안 이뤄졌던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한국당 몫 조사위원으로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 등 3명을 14일 극장 추천했다. 하지만 한국당 추천 인사들은 보수성향의 군 출신이거나 과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하한 바 있어 오히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추천 인사들이 5·18 진상규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권태오 상임위원의 경우, 박근혜 정부 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군 출신 보수 성향 인사로 꼽힌다. 여기에 이동욱 전 기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재수사 결과와 언론보도가 왜곡됐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차기환 변호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대한민국 정치체제를 부정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위원 추천과 관련, “5·18 영령과 피해자들에게 대한 모독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고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5·18 진상규명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당은 5·18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하는데 앞장선 인물이 아니라 진상규명 소신과 의지를 갖춘 인물로 재추천하라”고 주장했다.

일단,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마친에 따라 국회는 조만간 진상조사위원 명단(국회의장 1명, 민주당 4명, 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을 국방부에 통보하고, 국방부는 이를 청와대에 제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 임명 규정에 따라 진상조사위원을 임명한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에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부적절한 인물들을 걸러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재추천의 경우, 진상조사위원 출범이 크게 늦어질 수 있는데다 진보성향 조사위원이 6명으로 과반을 넘는다는 점에서 일단 조사위를 가동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 미세먼지 대책에 시민 분통 ▶6면
3·1운동 100주년 만세 현장을 가다
광주전 부동교에 1천명 만세상장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일보 뉴스
NAVER
포스트에서 보세요

예능+
NAVER
블로그 바로가기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GLC 350 e 4MATIC 출시!
탁월한 퍼포먼스와 놀라운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Mobilit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에서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어룡대로 603번길 20 (소문동)
 수안 서비스센터 (062)94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원율대로 520(수안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작동7단), 복합회합유도 모드 연비 (CS연비): 9.7km/ℓ (도심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복합전기모드 연비 (CD연비): 2.3km/kWh (도심연비: 2.0km/kWh, 고속도로연비: 2.6km/kWh), 복합CO₂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5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저를 의미하는 국내 시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